



## [지속가능] 英 테스코, 친환경 허브사료 재배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 소속 낙농가 대상 재배 비용의 80% 부담



영국 유통 전문 업체 테스코가 지속 가능한 사료 재배를 위해 소속 낙농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테스코는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해 향후 2년간 농가에서 직접 사료로 활용 가능한 허브 재배(herbal leys)를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 측에서 재배 비용의 80%를 부담할 예정이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품종은 적은 양의 비료로 쉽게 재배가 가능하고 삼림 벌채를 유발하는 대두와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재 15개 소속 낙농목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시작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건강한 토양,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위해 낙농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테스코가 2025년까지 대두 재배를 통한 삼림 벌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단체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edie.net, 8월 17일 >

## [시장동향] 비나밀크, 델몬트 필리핀지사과 합작사 설립

### - 합작사 '델몬트-비나밀크' 설립, 금년 약 103억원 매출 목표



베트남 최대 유가공기업인 비나밀크(Vinamilk)가 델몬트 필리핀지사과 합작사를 설립했다.

최근 양사는 각 300만 달러(약 35억원)를 투자해 '델몬트-비나밀크'를 설립한데 이어 오는 9월 필리핀에서 첫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매출 목표는 880만달러(약 103억원)로 연간 5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소득과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며 델몬트 필리핀지사과의 합작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유제품 공급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비나밀크는 현재 250여개의 유제품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 56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델몬트 필리핀지사는 필리핀 전역 10만여개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8월 17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